

---

# 제44호 방송심의보고서

---

2019.10.25.~10.31.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최일구의 정책을 말하다		
방송일자	2019. 10. 25.	시청률	0.004

### 【총 평】

<최일구의 정책을 말하다> 4회 방송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과 함께 중앙과 지방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한 “새로운 미래 만드는 자치분권”에 대해 살펴보았다.

**10월 29일이 지방자치의 날이라는 점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의미와 우리나라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해 본다는 취지를 충분히 살렸다.**

특히 ‘자치분권, 왜 핵심 국정과제인가?’와 ‘문재인 정부 2년반,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로 나누어 자치분권의 필요성, 자치분권 성과에 대한 평가, 앞으로의 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뤄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제고하는 기회를 제공한 점이 긍정적이다. 이와 함께 부산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반 평가와 과제를 알아보는 순서로 구성해 주목도와 설득력을 높였다.

또한,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를 맞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룰 관건은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3법의 통과여부에 달려 있음을 환기시키고 주민의 자치제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 점도 의미가 컸다.

### 【구성 및 내용】

<최일구의 정말>은 정책 담당자로부터 정부의 정책의 배경과 내용을 청취함으로써 정책 알림이 역할은 물론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돋보인다. KTV 정책방송의 정체성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주민주권을 설명하면서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확산돼 가고 있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예로 들었는데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적절한 인용이었다. 결론부분에서 공동체 의식의 확대가 필요하고 주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유의미한 마무리였다.

그리고, 최일구 진행자의 색깔을 우선 살리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질문 콘셉트, 질문지 단어의 대중적 구어체화, 주제를 들여다보는 시각의 변화 등에 변화를 준다면 프로그램 특색이 드러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정책을 다룰 때, 정책 취지에 따른 심도 있는 대화도 중요하지만, 시청자들 귀에 쏙쏙 들어오는 정책 설명,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미있는 접근법, 구체적인 설명 등이 필요해 보인다. 시청자 관점에서 아이টে를 바라보는 제작진의 시선이 절실하다.

### 【참고사항】

<최일구의 정말> 방송시간이 변경되었는데, 편성표 수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8시 20분에는 <우리 동네 개선문>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방송일자	2019. 10. 26.	시청률	0.180

### 【총 평】

이번 방송에서는 ‘인천, 포구에 깃들다’라는 주제로 인천의 양대 수산시장인 소래포구와 연안부두를 대상으로 소래포구에서는 수인선을 비롯한 소래포구 특유의 소리와 위판장의 경매사와 중매인의 경매진행소리, 시장상인들의 호객행위 소리를 담았고, 연안부두에서는 인천 앞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선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모습과 소리를 담았다.

**특히, 김영일 소리기록자가 소리에 대한 의미를 적절히 잘 부여하고 설명해 주어 시청하는데 있어 아주 도움이 되었다.** 사운드멘터리 취지에 적합한 소재와 함께 그 소재에서 비롯되는 소리들이 조화를 이루며 친절하게 다가왔다.

### 【구성 및 내용】

인천의 양대 수산시장인 소래포구와 연안부두를 방문하여 포구와 수산시장의 풍경과 소리를 담아주었다. 소래포구 인근을 지나는 과거와 현재의 수인선의 의미, 어선과 전철, 갈매기가 특유의 조화를 이루는 소래포구의 소리, 위판장의 경매사와 중매인, 시장상인의 모습과 더불어 연안부두에서 출항한 어선의 조업모습과 선상파시까지 다양한 장면, 장소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는 모습과 소리가 담겼다.

‘일제가 수탈 목적으로 37년에 건설한 수인선 흔적’과 ‘현재 다시 만들어져 전철이 운행 중인 수인선’이 나란히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줬다. ‘과거와 현재의 조우’를 한 화면에 담아 눈길 끌었다. 또, 소래포구 경매장의 경우도 ‘정찰제 시대에, 아직도 흥정이 남아있는 장소’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전반적으로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장소 특징을 ‘테마’로 특별함을 실었다.

오늘 방송에서는 ‘어촌과 포구, 만선과 풍년’을 담았기에 유독 ‘시각적 자극’이 커서, 시각에 청각이 묻힐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소리기록자가 ‘소리 부분’을 부각해 주면서, 콘셉트 고유성을 잃지 않았다.

이와 함께 포구라고 하면 배 모터 소리, 파도 소리, 바다생물들이 내는 소리 정도를 예상하게 되는데 오늘의 경우 ‘경매 소리’를 그 소리 중 하나로 편입시켰다. 예상하지 못했던 ‘소리 장르’가 포함되면서, 깜짝 재미를 선사했고 ‘사운드멘터리라는 프로그램 콘셉트 고유성’도 더 완성도 있게 부각했다.

### 【참고사항】

소리기록자가 ‘해당 장소=소리’와 접목해 설명을 해 준 부분들은, 소리다큐의 개성과 고유성을 잘 담았는데, 소리기록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운드멘터리라는 고유성을 느끼기 힘들었고 일반 다큐 느낌이 강했다. 소리기록자가 없는 부분들에서도 다른 장치로, 소리에 대한 주목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프로그램	메디컬 다큐 건강 더하기 행복		
방송일자	2019. 10. 27.	시청률	0.047

### 【총 평】

<메디컬 다큐 건강 더하기 행복> 침묵의 살인자 간질환편은 제20회 간의 날(10월 20일)을 맞아 증상없이 찾아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간질환의 원인과 관리방법을 다룬 계기성 기획이 돋보였다. 특히 **잡은 음주로 간경변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 환자와 만성 B형 간염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소홀히 하다 간암 3기까지 악화된 50대 여성의 사례를 통해 예방과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일깨운 점에도 의미가 컸다.**

그러나, 두 환자 모두 이상증세를 느낄 즈음의 증세가 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않아 아쉬웠다. 질병에 걸리지 않은 시청자들 환자들의 사연을 통해 자가검진을 하게 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평상시 생활습관과 증상을 꼭 빠트리지 말고 소개해 주면 좋겠다. 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절주 습관과 꾸준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건강정보 제공으로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 【구성 및 내용】

간질환을 ‘소리 없는 아우성’이란 표현한 것은 질환의 특성을 생각해볼 때 상징적이었고 또한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이 있었다. 습관적인 음주, 과다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간 경변을 사례로 들었는데 지방간을 진단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무시하고 방치했다가 겪게 되는 질환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게 다가왔다.

전직 교사였던 간암 3기 이희은(59세)씨는 30대 때 만성B형 간염 진단을 받았으면서도 간과했는데, B형 간염 증세, B형 간염이 간암으로 진행되는 과정 등을 구조적으로 다뤘더라면 시청자들에게 예방 효과 및 정기 검진의 필요성을 제대로 전달했더라면 시청학습 효과가 있었을 것 같다. 간 경변의 또 다른 중요 원인인 B형과 C형 간염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예방과 치료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이 있었더라면 시청자들에게 경각심을 더 심어주었을 것 같다. 마지막 부분에서 상복부 초음파 건강 보험적용 전후 비교 보다, 간 질환 예방을 위한 검진시기와 연령대, 자가진단 체크를 보여주었더라면 예방 효과도 있었을 것 같다.

### 【참고사항】

초음파 검사를 하는 상황에서 환자와 담당의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 환자가 치료를 받는 중에 인터뷰를 하는 것은 현장감을 주긴 하지만 환자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의가 아닌 것 같다.** 특히, 첫 번째 사례자는 초음파 검사를 대기하면서 옷까지 위로 올려 맨살이 보이는 와중에 인터뷰를 하는 장면도 있었고, 초음파가 끝나고 배에 묻은 젤을 닦아내는 화면도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장면인데도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 두었다. 편집할 때 특히 환자의 프라이버시에 관해 조금 더 생각해주면 좋겠다.

## 【방송법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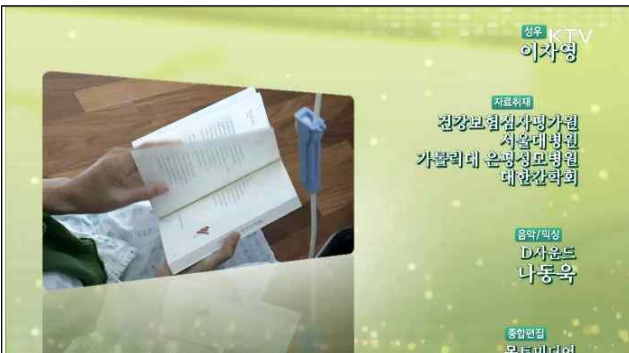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해당하는 방송 광고가 금지된 상품(의료기관)인 해당병원의 상호가 노출된 영상과 자막이 고지되었고, 또다시 해당병원의 상호명이 노출되어 방송법 규 위반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방송심의는 내용규제가 아닌 형식규제이며, 제작협조 및 제작지원을 위반사례로 지적한 경우가 있음. 따라서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등을 숙지하고 제작해야 함.

### ■ 의료기관의 상호명 및 자막 고지



### ■ 의료기관 취재협조



### ■ 의료법

####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 【시청자미디어재단 참고】

시청자권익보호 >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 방송광고 협찬고지 주요 위반사례

[https://kcmf.or.kr/cms/board/board\\_list.php?btype=violation&menuIdx=214](https://kcmf.or.kr/cms/board/board_list.php?btype=violation&menuIdx=214)

프로그램	국민기획 '과학특'		
방송일자	2019. 10. 27.	시청률	0.034

### 【총 평】

이번 방송은 '세상을 바꾸는 힘, 신소재'를 주제로 진행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국내 소재부품 장비의 글로벌 분업체계의 균열이 간 최근 일련의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신소재와 관련, 신소재의 의미와 분류, 신소재의 중요성 등에 대해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와 이혁모 교수가 출연하여 관련 내용을 전달해 주었다.

일반 시청자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신소재의 기본개념을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시를 들어 설명해 적절했다. 다만, **신소재와 관련해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룰 때에는 전문용어들이 자주 언급되고 과학적 배경지식이 부족할 경우 알아듣기 힘든 내용들이 많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 【구성 및 내용】

'신소재'란 무엇인가?에 대해 재미있고 쉽게 설명해 주었고, 선진국과 비교하여 신소재의 글로벌 분업체계 관계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 등으로 연계시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시켜 주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국민적 뜨거운 관심을 이끌어내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 시간이었다.

이제는 글로벌 분업체계에 의지하기 보다는 전 분야에 대해 자체 독립 기술이 가능하도록 산업 육성에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노력해 나가야 하는 부분임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다.

일본의 수출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소기업들의 근황을 소개한 부분이 주목됐다. 특히 산학연의 협력 체제를 살펴보는 의미가 있었다.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중단으로 특히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카이스트 교수들이 지원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했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자문단을 구성해 활동 중이고 이미 5~6건은 해결됐다는' 성과를 소개해 고무적이었다.

'신소재'에 대해 알아가는 내용, '일본의 통상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 부분' 사이를 잘 결합한 구성, 밸런스가 좋은 방송이었다.

### 【참고사항】

오늘 살펴볼 핵심 주제를 설명하는 자막 중 '혁신 소개 개발을 위한 제언' 이라고 표기되는 오류가 있었다. **'혁신소개' 아닌 '혁신소재'가 올바른 표기로 자막처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였다.** 또, '일본의 통상보복을 꼬집는 상황'에서 한선화 기자가 '이거 말씀드리면 제 나이가 뽀록날 수 있는데'라고 말했다. **'뽀록'은 일본어 '보로'(ぼろ) 비릇된 표현으로 방송에서 사용이 적절치 않았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19. 10. 29.	시청률	0.017

### 【총 평】

오늘은 5개의 리포트가 준비되었는데 수능 관련 리포트를 제외하고는 너무 축제, 공연, 전시 등 볼거리 위주의 소식만 다루어져 조금 아쉬웠다. 내용면에서 조금 다채롭게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민불편 사항이라든가 복지정책, 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미담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이 되었으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국민리포트라는 콘셉트가 소소하지만 의미가 있어 꼭 알리고 싶은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관한 이슈를 국민기자들의 눈으로 취재한다는 것인데 너무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에만 초점을 맞추면 원래 지향했던 방송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할 것 같다. 각 리포트의 내용 자체는 꽤 흥미로운 것들로 준비되었다.

### 【구성 및 내용】

- 대한민국 문화의 달 제주 원도심 들썩(박혜란 국민기자)  
올해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가 제주에서 열려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적 가치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전 세계 20개 나라의 예술가들이 거리에서 색다른 실험공연을 펼치는 이색적인 모습도 담아 눈길을 끌었다.
-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김치 담그기 외국인에게 인기(한영학 국민기자)  
서울시 대표지역 마포에서 열리는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현장 모습을 담아 전했다. 새우젓을 소재로 한 다양한 행사와 가족 단위는 물론 외국인이 즐길 수 있는 체험과 공연 프로그램을 자세히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 코앞으로 다가온 수능, 마무리는 어떻게?(이지민 국민기자)  
2020학년도 대입수학능력평가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과목별 공부 방법과 갈무리 정리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전달했다. 특히, 입시학원 전문가의 조언을 첨부하고, 남은 기간 체력 관리와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해 적절했다.
- 글로벌 리포트-호주에 울린 우리의 소리(윤영철 국민기자)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미팅 포인트' 음악회를 소개하고 동서양의 음악적 차이를 극복해 가는 실험적 무대와 우리전통 음악을 세계에 알리고자 노력하는 두 국악인을 소개해 관심도를 높였다.
- 칙칙폭폭 열차 추억 되살린 철도 문화제(최신영 국민기자)  
옛 철도청 대전사무소 보급 창고에서 경부선을 주제로 한 특별전시회가 마련돼 철도 역사와 문화를 되돌아보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철도 문화제'정보를 자세히 소개했다. 철도 문화제 개최 취지와 우리나라 철도역사와 관련해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유용했지만 이미 지나간 철도 문화제 소식을 뒤늦게 살펴 시의적절하지 못했다.

프로그램	현장출동 안전이 먼저다		
방송일자	2019. 10. 31.	시청률	0.000

### 【총 평】

가을개편과 함께 방송을 시작한 <현장출동 안전이 먼저다>는 음주운전, 산악사고, 지진, 해상사고에 이번에는 화재를 다뤘다. <방심이 만든 도심 속 화재>는 불이 많이 나는 계절과 소방의 날(11월9일)을 앞두고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예방에 힘쓰자는 메시지와 함께 소방관들의 노고를 생각해보고자하는 기획 취지가 돋보였다. 이번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도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 【구성 및 내용】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대국민 메시지를 충실히 전달하고자하는 기획의도를 살렸다. 화재 현장과 피해자 인터뷰로 시작한 본 방송에서는 도심형 화재의 위험성과 사례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최근 10년간의 화재발생 건수와 피해자 통계 수치를 전달하며 동시에 도심 내 다가주 주택의 화재, 음식점 화재, 스포츠센터 화재, 찜질방 화재 등 다양한 도심형 화재 사례를 소개해주었다.

이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화재를 줄여야하고 그러자면 예방의식 고취가 절실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대형 화재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방송해 현장감과 몰입감을 높인 구성이 돋보였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 점검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도 전달됐다. 화재안전조사 특별팀이 소화전, 가스시설, 건물내부를 점검하는 내용이 소개됐다.

또, 먼저 비상벨 울리기, 연기 흡입을 막기 위한 요령, 침착하게 119 연락하기 등 비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재발생시 행동요령을 상세히 알려준 점도 유익했다. 긴급 출동해 화재진압에 나서는 소방관을 추적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부각시켰다. 현장출동, 차량 속에서 방화복 갈아입기, 현장 긴급조치, 화염 속 건물진입, 긴박한 인명구조, 진화 작업, 복귀후 다시 장비점검, 출동 준비 등 소방관의 일상을 잘 보여주었다.

특히, 소방서로부터 제공받은 화재 영상을 생생하게 보여줘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치솟는 불기둥, 인명피해와 건물이 잿더미로 변한 광경, 화마가 쓸고간 처참한 모습 등이 화면에 나타나 경각심과 함께 불조심 의식을 고취시켰다.

### 【참고사항】

최근 10년간 연평균 4만 4천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매년 1,800여명이 부상당했고 320여 명이 사망했으며, 연평균 화재 사망자는 100건당 0.74명, 대형화재의 경우는 1건당 3.5명이라는 수치를 자막으로 소개했는데 해당 자료의 출처가 표기되어야 한다.

2018년 밀양에서 발생한 세종병원 화재 사고 내레이션에서 “정부는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화재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라고 했는데, 자막은 ‘근복적인 화재안전 개선대책을 위해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로 **어순의 차이가 발생**했음.

‘근복적인’은 ‘**근본적인**’의 **자막 오타**임

자료출처 표기 필요	자막 오류
	